

《內閣藏書彙編》 解題

延 甲 洙

이 책은 1870년대 중·후반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奎章閣의 書目으로 藏書閣에 소장되었으나 그동안 학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이다. 《內閣藏書彙編》은 본래는 2책인데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것은 下冊이다. 다른 한 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內閣藏書彙編》의 독특한 분류방식에 있다.

분류방식을 보면 규장각의 장서를 一·任·入·宜·應類(이들에 대한 합칭을 이하로는 ‘各類’로 略稱함)로 나누었고 이후에 수집된 서적들의 목록은 뒤에 新內下書目·春安堂書目(두 부분에 대한 합칭을 이하로는 ‘書目部’로 略稱함)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各類는 각 서적 제목의 첫글자에서 終聲을 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기 위해서 다음의 표를 작성하였다.

〈표〉 《內閣藏書彙編》의 분류방식

類 名	수득된 題名의 初字	種數 ⁽¹⁾ 및 卷數 ⁽²⁾
一類	列, 析, 日, 月, 七, 八, 乙, 實, 栗, 說, 雪, 薛, 鐵, 節, 闕, 筆, 不, 一, 越, 拙, 物, 別, 律, 韃, 設, 吉, 勿, 柒, 歇, 結, 閱, 出, 浙, 鷗	141종 2,433권
任類	三, 南, 金, 今, 心, 錦, 弁, 林, 潛, 咸, 嚴, 欽, 譚, 梵, 禁, 泛, 謙, 耽, 音, 函, 鍼, 參, 琴, 感, 范, 劍, 滄, 儼, 篋, 陰, 藩, 勘, 範, 沾, 瞻, 佔, 括, 儉, 審, 臨, 壬, 吟, 品, 占, 琳, 甌	172종 3,001권
入類	甲, 十, 捷, 笠, 協, 立, 合, 陝, 入, 臘, 雜, 涉, 集, 攝, 挹, 習, 沒, 廿, 葉, 輅	42종 1,173권

* 필자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 (1) 列聖註狀通記二件의 경우 一件二十二卷, 一件十卷으로 비록 같은 제목에 있지만 다른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新內下의 鬱陵島內外圖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奎章閣書目》(奎 11670)에는 鬱陵島內圖와 鬱陵島外圖가 자기 다른 제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소장되지 않은 책들이 많고 卷數의 내용도 요즘 발행된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과도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조사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본고는 제목 하나를 한 種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실제의 種數는 본고에서 작성한 것보다는 약간 많은 것임을 부기해둔다.
- (2) 서적의 卷數는 각 제목에 붙어 있는 註를 참조하였다. 간혹 完本의 권수 다음에 그것이 佚卷이라거나 나절본 몇권이 추가로 더 있음을 표기한 곳이 있지만 《奎章閣書目》에서 卷數를 세는 방식에 따라 본고에서도 그것들을 계산에 넣지는 않았다. 따라서 실제의 권수는 이보다 약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簇子·橫軸類 등은 권수 표시는 없지만 역시 《奎章閣書目》의 방식에 따라 권수에 포함시켰다.

宜類	大, 太, 禮, 儀, 徽, 諸, 海, 睿, 惠, 醫, 內, 啓, 世, 癸, 帝, 箕, 彙, 退, 紀, 己, 谿, 梅, 溪, 霽, 義, 濟, 晦, 龜, 歸, 祈, 會, 魏, 猗, 芥, 題, 戒, 寄, 藝, 來, 諧, 起, 佩, 疑, 淮, 稽, 外, 雷, 柱, 熙, 尉, 布, 畏, 悔, 耐, 記, 泰, 衛, 細, 災, 改, 圉, 對, 臺, 窺, 檜, 企, 洗, 幾, 祁, 幾, 槐, 倭, 岱, 宜, 眉, 毅, 聚, 懷, 陪, 鎖, 奇, 采, 畸, 體, 翠, 例, 預, 齋, 齊, 爲, 艾, 緇, 倪, 焙, 帶, 詠, 崔, 碑	313종 5,862권
應類	英, 正, 崇, 皇, 瓊, 清, 光, 景, 宗, 東, 永, 忠, 王, 龍, 貞, 弘, 莊, 鈴, 聖, 通, 養, 成, 兩, 凌, 廣, 恭, 宮, 唐, 奉, 明, 宋, 洪, 梁, 經, 整, 豐, 松, 中, 孟, 同, 公, 性, 鄉, 重, 敬, 壇, 刑, 荆, 名, 章, 尙, 馮, 涇, 榜, 聽, 封, 穎, 丁, 孔, 生, 星, 昌, 定, 庚, 青, 汪, 陽, 屏, 童, 鳳, 風, 靜, 醒, 荒, 楓, 蒙, 農, 平, 江, 夢, 廣, 蒼, 慶, 丙, 黃, 京, 兵, 誠, 綱, 種, 靈, 長, 香, 象, 嶺, 承, 壯, 容, 榕, 鴻, 政, 放, 張, 董, 藏, 庸, 彭, 冲, 銅, 滄, 戎, 瓶, 桐, 詠, 相, 雙, 岡, 登, 鏡, 型, 唱, 絳, 毓, 程, 懲, 螢, 恒, 匠, 忘, 警, 蕩, 彤, 興, 寧, 商, 精, 聲, 幸, 曠, 空, 篋, 情, 喪, 賸, 楠, 省, 將, 供, 楊, 靖, 鐘, 湯, 杏, 令, 偵, 頌, 鄭, 巨, 良, 盛, 桑, 邦, 康, 晴, 往, 龔, 丈, 應, 澄, 羹, 瀛	767종 14,640권
합	계	1,435종 27,109권

이상에서 一類는 ‘ㄱ’을, 任類는 ‘口’을, 入類는 ‘日’을, 應類는 ‘ㅇ’을 終聲으로 하는 글자를 제목의 初字로 하는 서적들을, 宜類는 받침없이 끝난 글자 중 ‘ㅣ’모음으로 끝나는 글자를 제목의 初字로 하는 서적들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ㄱ’, ‘ㄴ’ 등을 終聲으로 갖는 글자를 제목의 初字로 하는 서적들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만 완성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입수된 동양어학교 고서목록에 《內閣藏書彙編》이라는 동일한 제명의 책이 있어 주목된다.⁽³⁾ 그 목록에 따르면 동양어학교의 《內閣藏書彙編》은 2책이며 1891년에 만들어 졌다고 한다. 아직 동양어학교본을 직접 보지 않아서 확실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의 《朝鮮書誌》(Bibliographie Coréenne: tableau littéraire de la Corée) II 418쪽에 소개된 것이 동양어학교본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에 따르면 1책은 83張, 2책은 93張인데 1책과 2책의 70張까지는 책 제목 첫 글자의 終聲에 따라 15개의 계열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지금 영인하는 장서각본은 2책 중 下冊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서각본이 동양어학교본의 하권과 그대로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가령 《朝鮮書誌》에는 하책이 93張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장서각본의 新內下書目까지의 분량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동양어학교본은 春安堂書目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上冊을 살펴보지 않아서 단정을 내릴 수는 없으나 동양어학교 고서목록에서 이 책

(3) 《內閣藏書彙編》의 분류번호는 COR. I-7이다.

의 간행연도를 1891년이라고 한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 우선 《朝鮮書誌》에는 《內閣藏書彙編》의 서문이나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에 대한 소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기 작성된 다른 書目들을 보아도 서목작성 연도를 명기한 예는 거의 없다. 1891년은 모리스 쿠랑이 《內閣藏書彙編》의 사본을 빌려보았다⁽⁴⁾는 해인데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우선 이 책은 各類와 書目部의 작성이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書目部는 各類와 달리 발음에 따른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各類에는 卷數로 표기되는데 비해서 書目部는 冊數로 표기되었다.⁽⁵⁾ 그리고 各類마다에는 版心に 張數가 표기된 것에 비해 書目部에는 그러한 표기가 없다. 책의 제목들을 보아도 書目部에는 서양과학기술에 대한 서적들이 대부분인데, 各類에는 이러한 성격의 책이 전혀 없다.

그러면 《內閣藏書彙編》의 작성연대는 언제일까? 작성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書眉에 표기된 간지에 있다. 즉 書眉에는 ‘內入’한 연도의 간지가 적혀 있다. 各類에는 書眉에 內入한 해로 丁丑(1877년)~丁亥(1887년)의 간지가 적혀 있는데 그 필체는 동일하지 않다. 이를 보면 各類 부분의 書目이 완성된 뒤 內入한 사실이 나중에 적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各類부분의 서목은 內入하기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內閣藏書彙編》은 1877년 이전에 일단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대원군정권이 무너지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시기이다. 따라서 국왕이 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규장각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열람의 편의를 위해서 규장각의 서목을 발음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후 조선은 개항을 단행했고 이후 조선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중국에는 영선사행을 일본에는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특히 국왕은 金允植을 1882년 영선사로 중국에 파견하면서 그를 통해 중국 機器局의 南局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이에 대한 回禮로 당시 중국에서 간행된 西洋科學에 관한 서적들을 김윤식이 받아왔다.⁽⁶⁾ 이러한 서적들은 그 후 조선에 설치된 機器局이 아니면 奎章閣에 보관되었을 것이다.⁽⁷⁾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서목을 작성할 필요가 절실하였고, 이에 新內下書目(355種 4,978冊)

(4) 모리스 쿠랑, 《朝鮮書誌學序論》(丁奇洙 譯, 1989, 探求新書 9) 25쪽

(5) 冊數로 표기된 書目部의 책들이 이후에 작성된 《奎章閣書目》에는 다시 卷數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보면 各類와 書目部 서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卷과 冊으로 다르게 표기한 것이 아니라 書目部는 수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아직 卷數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서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陰晴史》고종 19년 4월 26일

(7) 李光麟, 1968,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38(《改訂增補版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에서 재인용)에서는 이 시기 수입되는 각종 서양과학기술서적을 주로 博文局의 附屬圖書室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책들은 국왕의 선물에 대한 回禮이므로 奎章閣에 보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김윤식이 가져온 서적은 《內閣藏書彙編》의 新內下書目中서 상당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과 春安堂書目(85種 1,896冊)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⁸⁾ 하지만 이들 서목이 일정한 시점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 같지는 않다. 新內下書目的 化學分原, 化學初階 등의 서적은 서목에 두번 등장하는데 이는 추가로 서적을 구입할 때마다 서목에 새로 기입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이 책들은 아직 卷數도 확인하지 않고 冊數를 직접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春安堂書目的 책들도 역시 국왕이 새로 하사한 것으로 보인다. 《內閣藏書彙編》의 新內下書目과 春安堂書目 대부분이 다음 단계에 작성된 《奎章閣書目》의 新內下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春安堂書目은 新內下書目에 비해서는 덜 정리된 상태이다. 이는 春安堂書目的 85種 중 16種은 冊數로 표시되지도 않고 아예 匣數로 표시된 것에서 알 수 있다.

書目部の 書眉에는 甲申(1884년)~丁亥(1887년)에 內入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金允植이 중국에서 가져온 서적들이 1882년 이후에 들어왔을 것을 생각하면 서목부의 서적들은 1882년 이후 1887년 사이에 수집된 장서들로 판단된다. 그리고 書目部の 書目을 통해서 4~5년간에 국왕 주도하에 상당량의 서적을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博文局도 漢城周報를 발간하기 위해서 외아문을 통해서 상당량의 서적을 수집하고 있었다.⁽⁹⁾ 이처럼 국왕과 외아문—박문국을 양대축으로하여 서양과학기술을 수집하고 있었음은 이 시기 개화정책이 국왕과 외아문을 중심으로 한 친청세력의 양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것⁽¹⁰⁾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도서의 수집·이용이 새로운 정책의 추진과 맞물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번잡한 추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內閣藏書彙編》은 1874~1877년경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규장각도서 열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각 서적들을 제목의 첫자의 終聲을 기준으로 서목을 작성하였는데 下卷의 各類만을 보더라도 총 1,435種 27,109卷의 서목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1,882년 이후에는 서양과학기술서적을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이러한 서적들은 新內下書目, 春安堂書目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1887년까지 수집된 서적은 총 440種 6,874冊이다. 그리고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서양과학기술서적의 수입은 이 시기 개화정책에 대한 국왕의 관심을 엿볼 수 있게하는 좋은 단서가 될 것이다. 좀더 정확한 해제는 프랑스 동양어학교에 소장된 《內閣藏書彙編》1冊의 10개類들을 확인한 후에 가능할 것임을 부기해 둔다.

(8) 春安堂은 景福宮 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宮闕註》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 및 용도는 아직 알피지 못하였다.

(9) 李光麟, 앞논문 91-94쪽

특히 博文局이 수입하고 신문에 인용된 내용을 보면 당시 上海 등지에서 발간되던 신문들이 상당수 있으나 《內閣藏書彙編》의 書目部에는 이러한 신문들이 적혀 있지 않다. 이는 博文局에 별도의 도서관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10) 연갑수, 1993,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3, 역사비평사